아이히만 구하기
아감벤의 '말없는 저항의 형식'에 대한 일고찰

고은강*

〈차 례〉

1. 문제 제기
2. 아이히만 퍼즐
3. 아이히만 퍼즐에 대한 아감벤의 관점
4. 무위(無爲)의 재해석
5. 결론

【국문초록】

'선한' 개인이 악의 없이 저지르는 악. 아이히만 퍼즐이 본 논문의 문제 제기다. 2차대전 전범인 아이히만의 사례다. 아이히만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여 부지런히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모범적인' 개인이다. 그는 특별한 악의도 없다. 그런데 유태인 대량 학살의 주범 중 하나였고 그 죄가 입증되어 처형당했다. 그는 법에 '복종'이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근면성'과 '자기 통제'라는 자신의 덕을 십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인종대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법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는 '선'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으며 법을 착오없이 집행하고자 하는 그의 방법 또한 ‘선’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악에 수렴하였다.

본 논문의 초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이히만 퍼즐의 핵심, 즉 아이히만에게 법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자기 계발에 열심인 근면한 덕성을 지녔으며 법에 복종하는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인 아이히만의 실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아감벤(Giorgio Agamben)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아이히만을 구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무위(無爲)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아감벤이 제기한 ’말없는 저항의 형식’을 보충한다.

주제어: 한나 아렌트, 무사유, 조르조 아감벤, 바틀비, 무위

1. 서론: 문제 제기

‘선한’ 개인이 악의 없이 저지르는 악. 아이히만 퍼즐이 본 논문의 문제 제기다. 2차대전 전범인 아이히만의 사례다. 아이히만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여 부지런히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모범적인’ 개인이다. 그는 특별한 악의도 없다. 그런데 유태인 대량 학살의 주범 중 하나였고 그 죄가 입증되어 처형당했다. 그는 법에 ‘복종’이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근면성’과 ‘자기 통제’라는 자신의 덕을 십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인종대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가질 수 없다. 법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는 ‘선’했으며 법을 착오없이 집행하고자 하는 그의 방법 또한 ‘선’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악에 수렴하였다.

본 논문의 초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이히만 퍼즐의 핵심, 즉 아이히만에게 법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자기 계발에 열심인 근면한 덕성을 지녔으며 법에 복종하는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인 아이히만의 실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아이히만 자신이 주장하듯이 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사회적인 오류의 희생양일 수도 있다. 김선욱의 지적처럼 언어의 문제로 수렴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아감벤(Agamben)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아이히만을 구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무위(無爲)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아감벤이 제기한 '말없는 저항의 형식'을 보충한다.

2. 아이히만 퍼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 퍼즐을 순전한 무사유(sheer thoughtlessness)에 기인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문제라고 보았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결코 깨닫지 못한"(아렌트 2006:391) 아이히만의 순전한 무사유를 한나 아렌트는 체화된 규범 이외의 것을 보지 못하는 "상상력의 결여"(같은 책 391)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에서 시온주의자들을 도와주다 경찰에 체포당했고 프랑스에서 활동하다가 비시 정권 하에서 강제수용소로부터 탈출하여 미국으로 망명한다. 유태인 학살의 주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재판을 참관하게 된다. 그 참관기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아이히만의 처형 장면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아이히만의 처형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주 근엄한 태도로 교수대로 걸어갔다. 그는 붉은 포도주 한 병을 요구했고 그 절반을 마셨다. 그는 그에게 성서를 읽어주겠다고 제안한 개신교 목사 윌리엄 헐 목사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는 두 시간밖에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감방에서 형장에 이르는 50야드를 조용히 그리고 꼿꼿이 걸어갔다. 간수들이 그의 발목과 무릎을 묶자 그는 간수들에게 헐렁하게 묶어서 자신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은색 두건을 머리에 쓰겠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로 남긴 기괴한 어리석음보다도 이 점을 더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중략)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장례 연설에서 사용되는 상투어를 생각해 냈다. 교수대에서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렸던 것이다. 그의 '정신은 의기양양하게 되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는 마치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 했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같은 책 349)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한국어로 번역한 한나 아렌트 연구자 김선욱은 '순전한 무사유에 기인한 악의 평범성' 문제를 말과 판단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아렌트가 말한 '순전한 무사유'란 곧 판단 능력의 결여를 의미한다. 아이히만에게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상상하는 능력의 결여, '법에 복종하라', '살인하지 말라' 등의 서로 상충하는 도덕률이 각각의 상황에 존재할 때, 대립을 해소하는 능력 등의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김선욱은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판단 능력 결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아

이히만이 일상어로 사고하지 못하고 상투어[1]로 사고하고 표현한다는 점은 그의 사유 불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둘째, '악의 평범성'은 말하는 능력의 결여에 따른 사고 능력의 결여가 야기하는 '악의 평범성'은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평범한 일"(김선욱 2006:71)이다. 김선욱은 "이 두 가지만으로는 왜 아이히만이 판단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하는 데까지는 나아갈 수 없다"(같은 논문 71-72)고 지적한다.

김선욱은 "말은 우리를 현실과 연결시켜준다." (같은 논문 73)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아이히만은 일상어가 아닌 상투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말로 자신의 현실을 해석하고 이에 기초한 판단을 내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상투어는 그 상투어가 사용되는 특정 맥락을 벗어나면 그 생경함 때문에 의미를 상실하거나 농담이 된다. 따라서 상투어로 표현되는 사고란 자신의 현실에 기반을 둔 사고가 아니다. 아이히만은 상투어가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특정 맥락을 통째로 자신의 사고 체계로서 받아들이고 그 사고 체계 속에 갇힌 것이다. 김선욱은 나치스가 암호화된 언어 규칙을 만들어 일상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로부터 현실을 유리시켰다고 지적한다(같은 논문 73).

나치스에 의하여 판단 능력을 상실당한 결과, '순전한 무사유'의 상태에 이르게 된 아이히만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역사의 희생양이 된 그를 동정할지언정, 그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지 않을까?[2] 아이히만 역시 자신이 "오류의 희생자"라고 항변한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잘못된 법에 복종한 죄를 범했다고 지적한다. 그

---

1) 위의 인용문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를 가리킨다.

2) 이 문제는 나치 전범 재판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최근 체포된 나치 전범 라슬로 사타리 재판 기사 참조. (2012년 7월 27일 한국일보 강지원 기자 보도)

러나 동시에 아이히만이 “유태인 혐오자”도 아니며 “인류의 살인자”가 되기를 의도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아이히만은 악인도 아니며 악한 동기를 품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렀다.

> 그는 결코 유대인 혐오자가 아니었고, 그는 결코 인류의 살인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의 죄는 그의 복종에서 나왔고, 복종은 덕목으로 찬양된다. 그의 덕은 나치스 지도자들에 의해 오용되었다. …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나는 오류의 희생자이다”라고 아이히만은 말했다. … 이틀 후인 1961년 12월 15일 금요일 아침 9시에 사형이 선고되었다. (아렌트 2006:343)

아이히만 퍼즐의 핵심은 미덕과 선한 의도가 악에 수렴하는 곤혹스러움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깔려 있다”(김진석 2011:187)는 사실이다. 악한 행동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악인도 아니며, 특정한 상황에서 악한 행동을 저지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 사람에게 죄를 묻는 문제가 아니다. 미덕을 갖춘 사람,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죄를 묻는 문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부지런히 계발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미덕을 갖춘 사람, 법에 복종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 미덕과 선한 의도 때문에 거대한 악행을 저지르고야 마는 문제다. 게으르고 자기 통제력이 약하며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면 저지르기 어려웠을 거대한 악이다. 아이히만 퍼즐은 ‘사회 규범을 따르는 것이 대체로 옳다’고 믿는 다수가 봉착한 문제다. 더구나 ‘법을 어기는 일이야말로 시민임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믿는 대다수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다. 자기계발의 성공 사례로 칭송받는 사람들 중 아이히만이 있을 수 있다. 사회 규범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순간, 아이히만의 교수대를 향하고 있을 수 있다.

3. 아이히만 퍼즐에 대한 아감벤의 관점

조르조 아감벤은『호모 사케르』에서 아렌트가 묘사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총통의 말에 복종하는 아이히만"(아감벤 2008:346)을 언급하고 있다. 아감벤은 "총통의 말을 법으로서 단지 실행에 옮겼을 뿐인 공무원"(같은 책 327)을 '법으로서' 심판하고 처벌하는 어려움에 대해 논한다. 법에 복종한 죄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어려움은 다시 말해서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저항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법에 복종하는 미덕'을 처벌해야만 하는 예외 상황을 구별해야 했던 아이히만 재판의 어려움은 '언제 법에 복종하고 언제 법에 저항해야 할 것인가'를 구별해야 하는 개인의 어려움에 비하면 사소하다. 저항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더라도 그 저항의 형식 또한 선택하기 어렵다. 특히 나치 독일처럼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법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아감벤은 이어서 프리모 레비가『이것이 인간인가』에서 묘사한 '무젤만'에 대해 언급한다. 무젤만은 수용소 은어로 "굴욕감, 두려움 및 공포가 그에게서 모든 의식과 모든 인격을 완전히 제거시킴으로써 결국 절대적인 무기력 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같은 책 347)을 가리킨다. 아감벤은 무젤만이 "이성과 함께 모든 본능도 소멸되어"(같은 책 348) 버린 존재로서 추위로부터 오는 고통, 두려움과 수용소의 잔인한 폭력으로부터 오는 고통, 두려움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무젤만-그는 명령과 추위를 구별하지 못한다-의 그러한 행동이 말없는 저항의 형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기라도 한 듯 말이다."(같은 책 348)

아감벤은 그러나 '무젤만'을 '말없는 저항의 형식'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무젤만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 만약 무젤만이 도구적 성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생각 자체를 멈추었다고 해도, 생각을 멈추

고도 주체가 될 수 있어야만, 무젤만의 행동을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근대인이 자신을 객관화하기 위해 비춰 보는 거울이 바로 푸코가 말한 바의 '지식'이다. 이 지식에 권력이 개입한다. 근대인이 자기 자신으로서 받아들이는 객관화된 '자신'에 권력은 필연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예컨대, 의료 지식은 단순히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건강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한, 지식-권력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아이히만의 경우를 보면, 자신을 성찰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권력에 포섭된다. 도구화된 성찰성은 근대인의 숙명이다. 아이히만은 도구화된 성찰성을 적극 활용한 반면, 무젤만은 성찰을 멈춤으로써 지식-권력의 지배로부터는 일단 벗어났다. 그러나 동시에 더 이상 주체가 아니게 되어 버렸다.

'무젤만'을 더 이상 주체라 부를 수 없는 지점에서 아감벤은 바틀비를 끌어 들인다. 1853년 허먼 멜빌이 발표한 단편 『필경사 바틀비』에 등장하는 바틀비는 이 소설의 화자(話者)인 '나'의 사무실에서 법률 문서의 필경사로 고용되었다. 복사기가 없던 시절, 복사기의 일을 대신하는 직업이 필경사다. 변호사인 '나'는 "내가 보거나 들어 알던 필경사들 중 가장 이상했던 바틀비의 인생"에 대해 묘사한다. 바틀비는 '나'의 사무실에 '은둔처' 곧 그의 삶의 장소를 정하고 법률 문서를 필사하는 삶을 산다. 그 외에 그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은 그의 삶과 그 이외의 것을 가른다. 바틀비는 그의 삶이 아닌 삶을 거부하기로 선언한다. 그의 최초의 선언은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인가에 있었던 일"(멜빌 2011:29) 에서 터져 나왔다. '내'가 바틀비를 불렀을 때 '나'의 용건은 "나와 함께 적은 양의 문서를 검증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틀비가 그의 은둔처에서 나오

지 않고 매우 상냥하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아니 당황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라."(같은 책 29)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역시 문서의 검증 작업을 위해 바틀비를 불렀고 역시 같은 대답을 들어야만 했다. '나'는 이번에는 그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요구했다. "왜 거부하는 거지?"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같은 책 33) 그런데 '나'는 그에게 화를 낼 수 없었다. "내가 말하는 동안 그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신중히 숙고하는 듯했다. 말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항할 수 없이 당연한 그 결론을 부정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보다 우위에 있는 중요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같은 책 33-34) '나'는 바틀비를 해고하고 사무실에서 쫓아내려고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의 장소인 사무실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바틀비가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무실을 옮긴다. 새로운 사람이 사무실로 이사와도 바틀비는 그 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안 하는 편을 택"한다. 결국 바틀비는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를 되풀이하다가 구금되고 식사를 거부하다 죽는다. 멜빌은 바틀비가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를 반복하는 "중요한 사정"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

바틀비의 거부가 무엇에 대한 거부인지, 무엇을 위한 거부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틀비의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를 두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시도되었다[3]. 바틀비에 대한 여러 해석 중,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를 잠재성(potentiality)과 연결한 아감벤의 해석은 의미심장하다. 아감벤은 "바틀비가 무(無, the Nothing)-모든 피조물이 그로부터 유래된-의 극단"(Agamben

3) 1886년부터 1978년 사이에 이미 262건의 주요 논문 및 비평문이 발표되었다. (Inge 1979 참조)

1999b:253)이며, 바틀비가 “이러한 무(無)란 순수하고 절대적인 잠재성임을 가장 냉정하게 입증”(같은 책 253-254)하고 있다고 말한다.[4] 아감벤은 “잠재성에 관하여(On Potentiality)”라는 논문에서 “잠재성이란 단지 이것 혹은 저것을 하는 잠재력(the potential)이 아니라 하지 않는 잠재력, 실재성(actuality)으로 전환되지 않을 잠재력”(Agamben 1999a:179-180)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홍림, 홍철기는 아감벤을 분석하며, “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I would prefer not to)”(유홍림, 홍철기 2007:175)에 주목한다. 유홍림, 홍철기는 아감벤이 『호모 사케르』에서 논한 슈미트와 아감벤의 ’삶의 방식’을 대조한다. 이들은 슈미트와 아감벤은 각각이 제시한 ‘삶의 방식’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유홍림, 홍철기에 따르면, 슈미트가 말한 ‘삶의 방식’이 자신의 존재에 고유한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인가 투항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요구”(같은 논문 178)하는 데 반하여[5], 아감벤의

---

4) 공진호는 “조르조 아감벤에 의하면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다는 바틀비의 말은 “존재하거나 행동할 잠재성”과 “존재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을 잠재성” 사이에 있는 일종의 ‘비무장 지대’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공진호. “옮긴이의 말” 멜빌 2011:102)

5)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규준으로서의 동지와 적의 구별”(슈미트 1995:31)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에게 ‘적’이란 ‘타인’, ‘이질자’이다. “정치상의 적이 도덕적으로 악할 필요는 없으며, 미적으로 추할 필요는 없다. 경제적인 경쟁자로서 등장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아마 적과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같은 책 32) 적과 충돌할 경우, “자기식의 존재에 적합한 생활양식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과 투쟁하는가의 여부는 당사자 각자만이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같은 책 32) 슈미트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토론하는 국가’에 대하여 ‘결정하는 국가’를 제안한다. 그는 정치 이념의 핵심은 도덕적 결정임을 강조한다. 그는 “정치신학”이라는 글에서 국가주권이란 “결정의 독점”(슈미트 1988:23)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법질서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정상 상태가 창조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국가의 주권자란 “정상적인 상태가 실재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자”라고 정의한다.(같은 책 23) 다시 말해서, 주권자란 정상과 예외에 대한 결정을 독점한다. 만약, “정치신학”에서 슈미트가 ‘양자택일’의 가능성, 다시 말해서, ‘결정하는 국가에의 복종’

'삶의 방식'이란 양자택일을 거부함으로써 헐벗은 삶, 다시 말해서 "주권에 의해 법이 중단됨으로써 법적 권리와 능력이 박탈된 존재인 동시에 삶, 혹은 인간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의 잠재성과 능력이 중단된 존재"(같은 논문 177)를 산출하는 "주권의 원리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같은 논문 177)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바틀비를 통해 아감벤이 말하는 '아이히만 구하기'의 핵심은 법, 규범을 전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거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잠재태'로서 남아있는 주체다. 바틀비의 '삶의 방식'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삶의 방식' 자체를 거부한다. 푸코의 용어로 설명하면, 바틀비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지식-권력 그 자체를 거부한다. 이 방식은 일단은 성공적이다. 바틀비의 '삶의 방식'을 적용하면, 외부로부터 주어진 지식-권력을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주어진 지식-권력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계발했던 아이히만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바틀비와 같은 삶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잠재성을 실제성으로 전환하기를 거부하는 주체'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21세기 현대 사회를 들뢰즈, 보들리아르[6] 비롯한 철학자들이 지적한 시뮬라크르의 세계로 이해한다면 주체의 문제를 잠재성과 실제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본없는 복제, 곧 시뮬라크르가 점유한 세계에서 잠재태로 주체를 설명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원본도 없는 시뮬라크르의 세계에서 잠재성이 위치할 곳은 없다.

이외에 '삶의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면, 그것은 '합리주의적 도식'에서 벗어난 '구체적인 생활 철학'을 강조한 부분(같은 책 24- 25)일 것이다. 그는 "예외에서 현실 생활의 힘은 반복 속에 경직된 메카닉의 껍질을 깨뜨린다."(같은 책 25)고 썼다. 아감벤은 이 부분을 "반복으로 인해 굳어진 어떤 메커니즘의 껍질을 부수어버리는"(앞의 책 152) 생명과 연결시킨다.

6) 들뢰즈(2004), 보드리야르(1996) 참조.

4. 무위(無爲)의 재해석

아감벤의 ‘아이히만 구하기’는 “말없는 저항의 형식”(앞의 책 348)이다. 본 장에서는 아감벤이 제기한 ‘말없는 저항의 형식’에 대하여, ‘잠재성-실제성’과의 연관을 배재한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바틀비의 행동을 아감벤의 관점인 ‘실재성 (actuality)으로 전환되지 않을 잠재력’으로 설명하지 않고, 푸코의 용어로 ‘지식-권력에 포섭되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주체의 행동’으로 설명할 것이다. 지식-권력은 결코 무리해 보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지극히 상식적인 규범의 모습을 띤다. 예컨대, ‘정상 체중을 초과한다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살을 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식이다. 필경사가 자신이 필사한 문서를 함께 검토하는 일은 사무실에서 통용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규범이다. 이를 거부하는 행동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여겨진다. 아이히만은 ‘공무원’인 자신의 위치에서 총통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생각했다.

아이히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일을 보통사람 이상으로 성실히 이행했기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가 주어진 규범을 전면 거부했다면 거대한 악에 복무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주어진 규범’을 거부하는 삶의 방식은 그 규범이 올바른 규범인지 잘못된 규범인지, 나치 전체주의에 의한 규범인지 바이마르 헌법인지 구분해야만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아렌트 역시 지적했지만, 주어진 도덕 체계 속에서 주어진 도덕 규범에 복종하는 행동은 흔히 미덕으로 간주되기에 ‘악의 평범성’이 성립한다. 아이히만에게는 그 도덕 체계가 하필 나치즘이었다고 이해한다면, 아이히만 자신의 주장대로 아이히만은 그저 체제의 오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아이히만 구하기’는 아이히만에게

다른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의 악행이 단지 체제의 오류가 아니라 그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입증하는 작업이다.

다시 『필경사 바틀비』로 돌아가면, 소설에서 '나'는 바틀비에게 '주어진 규범'을 제시한다. '나'는 온건한 사람이며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된다. '내'가 바틀비에게 필경사로서 제시하는 '주어진 규범'은 지극히 상식적인 길이다. 바틀비 이외의 다른 필경사들은 '의심없이' 모두 '주어진 규범'을 따른다. 그러나 바틀비는 '내'가 제시하는 '주어진 규범', 사무실의 다른 필경사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적용되는 '주어진 규범', 다시 말해서 다른 필경사들은 거부는커녕 의심도 하지 않는 '주어진 규범'을 거부한다. 그는 '주어진 규범'을 따르지 않는 편을 선택한다. 그는 필경사로서 문서를 베끼는 일 이외의 다른 어떤 일도 하기를 거부한다. 베낀 문서를 검토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의 일상적인 대화도 거부한다. 바틀비는 심사숙고한 끝에 상냥한 목소리로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한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바틀비는 문서를 베끼는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되었다. 그러나 나는 문서를 베끼는 일 이외의 부가적인 일을 '필경사'의 일이라 규정한다.

바틀비는 거부할 뿐이다. '내' 사무실에서 '필경사'라는 이름(名)의 의미는 '내'가 정한다. 여기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총통의 말에 복종하는 아이히만"(아감벤 2008:346)이 연상된다. '나'의 명명법에 따르면, 필경사는 문서를 베끼는 일 이외에도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바틀비는 결국에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연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나'의 명명법에 투항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경사'라는 이름의 의미를 자신이 정의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 예컨대, 그는 사무실의 다른 필경사들과 공모하여 '나'의 명명법에 저항할 수 있다. '필경사는 필사만 하며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고용 계약을 분명히 하여 새로운 사무실 규범을 만들 수도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바틀비는 '투항'

도 ‘투쟁’도 하지 않는다. 그는 문서를 베끼는 일 이외에 ‘내’가 요구하는 다른 일들을 ‘안 하는 편을 선택’했을 뿐 그 외 다른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바틀비는 ’하는 편’ 즉, 위(爲), 혹은 ‘하지 않는 편’ 즉, 불위(不爲)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는 ‘안 하는 편’, 즉 무위(無爲)를 선택한다. 바틀비의 거부는 통상적인 의미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이 아니다. 무위자연의 통상적인 해석 즉,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틀비의 거부를 이해할 수는 없다. 거부는 자연스럽기는커녕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의 연속이다.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 바틀비의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의 에너지가 요구된다. 바틀비는 ‘나’로부터 주어진 이름(名)이 부여하는 ‘함(爲)’을 ‘안 하는’ 무위(無爲)를 선택하는데, 무위가 곧 자연(自然)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필경사는 문서를 베끼는 사람이다. 그것이 필경사라는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이다. 필경사가 문서를 베끼는 사람을 가리키는 상태가 자연(自然)이다. 바틀비가 문서를 베끼고 있을 때 그는 자연(自然)에 부합한다. 바틀비가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를 처음 입 밖에 내기 전의 이틀간 그는 “마치 오랫동안 필사에 굶주린 것처럼 문서로 실컷 배를 채우는 듯”(멜빌 2011:27) “묵묵히, 창백하게, 기계적으로 필사”(같은 책 27)했다. 이 상태가 바틀비 자신의 자연(自然)이다. 바틀비는 ‘내’가 지시하는 위(爲)를 ‘안 하는 편을 택’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필경사의 자연을 가리킨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은 안 하는 것을 택함으로써 자연을 지향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본다면, 바틀비의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는 ‘무위’로 번역될 수 있다. 도(道)를 사회구성원들이 따라야만 하는 길, 명(名)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규범으로 주어지는 이름이라고 번역하면, 『필경사 바틀비』에서 ‘내’가 그토록 알고 싶었으나 끝내 알 수 없었던 바틀비의 거부 그 “우위에 있는 사정”을 『도덕경』 첫 구절,

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바틀비가 "무위!"라고 선언하는 이유는『도덕경』첫 구절, '길이 길답다면 통상적인 길은 아니며 이름이 이름답다면 통상적인 이름은 아니다.(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에서 찾을 수 있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는 '무위'는 길이 길답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길이어서는 안 되며 이름이 이름답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이름이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필경사 바틀비』에서 사무실의 주인인 '내'가 바틀비에게 제시하는 길은 바틀비의 관점에서는 필경사의 길답지 않으며 필경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바틀비는 '무위'라 선언함으로써 그가 생각하는 필경사의 자연(自然), 다시 말해서 필경사로서 그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지시한다. 바틀비의 삶의 방식은 '길이 길답다면 통상적인 길은 아니며 이름이 이름답다면 통상적인 이름은 아니다.'에 기반을 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실천에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띠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틀비의 경우처럼 때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들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

소위 노자의 대표 철학으로 알려진 무위(無爲)는 도(道)에 대한 거부이며 명(名)에 대한 거부라고 해석한다. 도는 기존에 통용되는 도, 이미 정해진 도,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의심없이 따르는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 명 역시 기존에 주어진 명으로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의심없이 부르는 이름과 그 이름에 따른 자격, 역할 및 기능이다. 무위는 기존에 통용되는 길, 이름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노자는 모두가 가는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고 통용되는 이름을 불러서는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히만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어진 길, 주어진 이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가는 아이히만처럼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길, 주어진 이름

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길, 주어진 사물에 가장 걸맞는 이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은 늘 다르다. 늘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기에 일을 그르친다. 규범적 행동이란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행동이 아니다. 규범적 행동을 취하면 비난 받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 주어진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길, 주어진 이름에 따른 규범적 행동, 즉 위(爲)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위(無爲)다. 일단, 주어진 위(爲)를 무(無)로 돌리고 나면, 그 지점으로부터 상황을 주어진 대로 보게 되고, 관성에 의존하지 않는 실천이 생겨난다. 그러한 실천이 집약된 구절이 『도덕경』의 첫 구절,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아이히만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아이히만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할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아렌트가 제기한 ‘악의 평범성’ 문제를 아감벤의 ‘말없는 저항의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재검토했다.

그러나 ‘말없는 저항의 형식’은 무젤만에서 바틀비로 또 무위(無爲)로, 저항의 강도를 높이고 형식을 능동적으로 바꿔도 여전히 중요한 한계를 노출한다. 삶의 방식으로 구성되는 주체의 문제다. 앞서 제기한 시뮬라크르의 문제와 더불어 바틀비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은 구성주의로부터 온다. 푸코와 버틀러[7]를 비롯한 푸코의 추종자들은 주체가 구성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들

7) 푸코(2006), 버틀러 (2003) 참조.

구성주의자들에게 '삶의 방식'이란 개인이 주어진 지식-권력 체계 속에서 주체로서 자신을 구성해가는 방식이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은 삶을 통해 자신을 구성해 간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식-권력에 포섭되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바틀비의 방식으로 구성되는 주체는 주체를 '구성해간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결과가 빈곤하다. 바틀비는 지식-권력에 저항하여 주체로서의 자신을 지키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의 삶은 지식-권력, 그 속에서 자신을 구성해가는 주체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극도로 위축되고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아감벤은 주체의 문제에 가로막히자 아리스토텔레스로 회귀했지만 그 길은 동시대의 관련 논의들과 소통이 불가능한 막힌 길이다.

'말없는 저항의 형식' 이외에 다른 선택은 '성찰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주체'에서 찾을 수 있다. 김홍중은『마음의 사회학』에서 아이히만과 무젤만을 "두 종류의 결손 인간"으로 제시하며 "두 유형의 무사유성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홍중 2010:93) 그는 "생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무슬림[8]"을 "나치에 의해 생산된 '살아 있는 시체', 그리고 "순전한 무사유성에 빠진 아이히만"을 "나치라는 대타자의 법에 완전히 종속된 '스놉'"이라고 부른다(같은 책 93).

> 우리는 이 두 유형의 무사유성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무슬림의 무사유성은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생명 그 자체의 절대적 사보타주에서 비롯된 것이다. … 그들은 저항의 의지도 삶의 의지도 심지어 절망의 의지도 없다. 그리하여 당연히 사유의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무슬림은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생산하는 폐인들의 선조이다. 그러나 아이히만의 무사유성은 이와는 다르다. (중략) 그는 성찰성(reflexivity)을 갖고 있다. … 성찰적인 주체(I)는 스스로를 마

8) 프리모 레비는 '무젤만'이 원래 '무슬림'을 가리키는 속어였으며 수용소 내에서 "절대적인 무기력 상태"인 사람들을 비하하여 '무젤만'이라고 불렀다고 쓰고 있다. 김홍중은 무젤만 대신 무슬림이라고 쓴다.

> 치 타인처럼 하나의 대상(me)으로 변환시켜 객관적이고 무사심한 판단의 거리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발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찰성은 '자기의 테크닉' 전반과 연관된다. 아이히만이 보여주는 무사유성의 특이함은, 그것이 사유능력의 전면적 폐기가 아니라, 고도의 성찰적 능력 즉 자기 통제, 자기 연출의 능력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같은 책 94)

김홍중은 아이히만 퍼즐을 스놉의 문제로 본다. 다시 말해서, 아이히만 퍼즐은 성찰성의 결여가 아니라 성찰성의 도구화에 그 핵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 그(아이히만)의 성찰성은 마비되기는커녕 오히려 극단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는 바보가 아니라 지나치게 영악한 자이다. 그는 놀라운 명령 수행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명령의 원천을 문제 삼지 않는다. 문제는 성찰성의 도구화, 즉 도구적 성찰성의 전횡이다. 스놉은 성찰성을 도구화한다. 요컨대 그는 성찰 그 자체를 성찰하지 않는다.(같은 책 94-95)

김홍중은 자신이 아이히만 퍼즐의 핵심으로 지적한 성찰성의 도구화를 방지하는 방법, 즉 '성찰 그 자체를 성찰'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그는 '진정성(authenticity)'이라는 일종의 화두를 던짐으로써 '스놉'의 대립항으로 설정한다. 성찰성을 도구화하지 않는 것만으로, 예컨대 성찰성을 포함한 생각 자체를 정지시키는 '무젤만(무슬림)'과 같은 실천으로 진정성을 획득할 수는 없다. 진정성은 '성찰 그 자체를 성찰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성찰 자체를 성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성찰 자체를 성찰'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상투어를 주워섬기는 아이히만은 스놉이다. 아이히만 자신의 말은 자신의 것이 아닌 총통의 것이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이히만 구하기'의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는 '성찰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주체'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욱, 「한나 아렌트에 있어서 말과 판단의 보편성 문제」, 『철학연구』 99, 대한철학회, 2006, pp. 59-78.
김진석, 『우충좌돌: 중도의 재발견』, 서울: 개마고원, 2011.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파주: 문학동네, 2010.
미셸 푸코, 문경자, 신은영 역,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 서울: 나남출판, 2006.
유홍림, 홍철기, 「조르지오 아감벤의 포스트모던 정치철학」, 『정치사상연구』 13-2, 한국정치사상학회, 2007, pp. 155-182.
장 보드리야르, 하태환 역, 『시뮬라시옹』, 서울: 민음사, 1996.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쥬디스 버틀러,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고양: 인간사랑, 2003.
질 들뢰즈,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2004.
칼 슈미트, 김효전 역, 『정치신학』, 서울: 법문사, 1988.
칼 슈미트, 김효전 역, 『정치적인 것의 개념』, 서울: 법문사, 1995.
프리모 레비, 이현경 역, 『이것이 인간인가』, 파주: 돌베개, 2007.
한나 아렌트, 김선욱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파주: 한길사, 2006.
허먼 멜빌, 공진호 역, 『필경사 바틀비』, 파주: 문학동네, 2011.
Agamben, Giorgio, "On Potentiality" In Giorgio Agamben, *Potentialit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a, pp. 177-184.
Agamben, Giorgio, "Bartleby, or On Contingency" In Giorgio Agamben, *Potentialit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b, pp. 243-271.

Inge, Thomas, *Bartleby the inscrutable: a collection of commentary on Herman Melville's tale "Bartleby the scrivener",* Hamden: Archon Books, 1979.

<자료>
『도덕경』

<보도 자료>
2012년 7월 27일 한국일보 강지원 기자 보도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207/h2012072721035622450.htlm

Saving Eichmann
Rethinking Bartleby's Resistance in Giorgio Agamben

Koh, Eun-Kang

This article reexamines the issue of 'thoughtlessness', which Hannah Arendt raised in *Eichmann in Jerusalem*. As well known, Eichmann was a war criminal of World War Ⅱ and Arendt wrote *Eichmann in Jerusalem* based on her observation of his trial in Jerusalem. In *Eichmann in Jerusalem*, Arendt argued that the evil of Eichmann did not derive from his evil intention but his sheer thoughtlessness. Eichmann's sheer thoughtlessness made him serve under Hitler with fidelity and took him to the gallows.

This article focuses on two issues. Firstly, Eichmann had alternatives other than service to Nazism and Bartleby's resistance is one of the alternatives. Secondly, *wuwei,* or non- deeming action can be interpreted as an elaborated form of Bartleby' resistance. *Wuwei* offers a solution to Agamben's argument of "the potential".

Key words: Hannah Arendt, sheer thoughtlessness, Giorgio Agamben, Bartleby, *Wuwei*

고은강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주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어의관 기초교육학부
전화번호: 02-970-6256
전자우편: eunkangkoh@seoultech.ac.kr

이 논문은 2012년 7월 11일 투고하여
2012년 8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8월 23일 게재 확정함.